

코로나 확진자 격리 5일로 단축될까

4일 WHO국제보건규칙 긴급회의...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여부 결정 위기단계 '경계' 조정시 선별검사소 종료...광주·전남 900명대 확진

정부가 코로나19 위기단계 1단계 조정 시점으로 예측한 5일로 접어들면서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는 길도 가시권에 들어왔다.

곧 있을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 또는 유지 결정에 따라 확진자 격리 축소를 비롯한 국내 조치들도 뒤를 잇는 것으로 보인다.

2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WHO는 오는 4일 오후(현지시간) 코로나19 국제보건규칙 긴급위원회 회의를 열고 코로나19에 대한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 선언의 유지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WHO는 2020년 1월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언한 후 3년 넘게 유지 중이다.

회의 결과는 통상 수입의 시차를 두고 공개되는데, 결과를 예측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1월 말 열린 직전 회의에선 중국 내 확진자 증가 등이 변수가 되며 유지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지난달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지금 팬데믹

(대유행) 시기의 어느 때보다 훨씬 나은 상황에 있다"며 "PHEIC 선언이 해제된다고 올해 안에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WHO의 결정은 국내 방역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혔다.

위기평가회의 일정은 아직 잡지 않은 상태지만, WHO가 비상사태 해제를 결정하면 우리 당국도 머지않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는 1단계 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WHO의 결정은 참고 사항일 뿐 국내 상황을 고려해 별도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WHO가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 선언을 하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위협이 감소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어 해외 방역상황 평가

에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이어 "다만 WHO에서 고려하는 것은 전 세계 방역상황 평가이고, 국내 방역상황과 대응 역량은 다를 수 있다"며 "국내 상황과 역량을 고려해 별도로 위기단계를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1단계 조정이 결정되면 우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가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격리 기간이 줄어도 저소득층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금액 삭감 없이 유지된다. 지역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은 종료되며,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범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도 중단된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우리나라는 감염자 비율과 재감염 비율이 높고 재감염은 경증 수준이 많아 (격리 단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실질적인 세부 조치를 떠나 장기적인 팬데믹 대응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전남 지역의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2일 921명을 기록해 지난주부터 1000명대 근접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日 기사다 7~8일 방한...대통령실 공식 발표

기사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실무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공식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기사다 총리와 한일 정상회담을 하고 양국 현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3월 방일 계기에 기사다 총리 서울 방문을 초청한 바 있으며, 이번 기사

다 총리 방한을 통해 정상 간 셔틀외교가 본격화된다"고 밝혔다.

이어 "기사다 총리 한국 방문은 2011년 10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서울 방문 이후 12년 만에 이뤄지는 일본 총리의 양자 방한"이라고 소개했다.

이번 방한에는 기사다 유코 여사도 동행한다.

/연합뉴스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9월부터 지급

광역시 첫 도입...8000여 가구에 연 60만원 상생카드로

광주시가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오는 9월부터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농민 공익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지급 대상 가구는 8000여 가구, 총사업비는 49억원 안팎으로 추산되며 광주시가 80%, 자치구가 20%를 부담한다.

농업경영체(농가) 당 연간 60만원을 광주 상생카드에 9월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지역에 거주하면서 실제 경작한 작년 기본형 직불금 수령 농가 또는 가족, 곤충을 사육하는 농가다. 부부 또는 같은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등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다. 농업 및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위반자 등은 받을 수 없다.

'농민공익수당'은 농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의 공익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하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 2월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해 본격 시행하는 신규사업이다.

광주시는 오는 8월까지 신청 농가를 대상으로 지급요건 검증, 실태 점검,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9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건강한 먹거리를 시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업의 공익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해 온 농가에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활력을 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임금님 진상품' 무등산 수박을 살려라

광주시, TF 구성...현장 찾아 품질 향상·보존 등 의견 수렴

광주 대표 특산품인 무등산 수박의 명성 회복을 위해 저지단체와 관계 기관들이 머리를 맞댔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 북구, 생산자 단체, 전남대, 농협 등 관계자들은 최근 '무등산 수박 육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지난달 27일 첫 회의에서 활동 방향을 논의하고 지난 1일에는 생산 현장을 찾아 현황을 파악했다. 품질 향상과 보존에 필요한 의견을 수렴해 저지 방안 등을 담은 무등산 수박 육성 계획서를 수립할 예정이다.

무등산 수박 재배 농가는 2000년 30 농가(재배 면적 12ha)였으나 2017년 11 농가(3.1ha)로 줄었으며 2020년부터는 9 농가(2.6ha)에서 간신히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생산량도 2018년 2300통, 2019년 2500통, 2020년 1700통, 2021년 2500통에 불과했으며 지난해(1974통)에는 2000통에도 못 미쳤다. 무등산 자락인 북구 금곡동, 충효동 일대에서 재배되는 무등산 수박은 일반 수박보다 압도적으로 크고 감칠맛이 뛰어나 임금에게 진상되기도 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부처님오신날·성탄절' 대체공휴일 확정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양력 12월 25일)에 대체공휴일 적용이 최종 확정됐다.

올해 부처님오신날은 토요일인 5월 27일로, 29일 하루 대체휴일이 주어지면 사흘(5월27~29일) 연휴가 가능해졌다. 인사혁신처는 2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에 대체공휴일을 운영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법령은 대통령 재가 후 이번 주 안에

관보에 게재돼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설·추석 연휴 등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대체공휴일로 지정해 운영할 수 있다. 공휴일이 토요일·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그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이 대체공휴일이 된다. 공휴일 가운데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는 날은 새해 첫날(1월 1일)과 현충일(6월 6일)만 남았다.

/연합뉴스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범국민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도,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개소 대상...6월30일까지

전남도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에 나선다.

사·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꾸준히 늘고 일본산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과 주로 일본에서 수입되며 연간 원산지 위반 사례가 빈번한 활가리비, 활우렁छ이 등을 점검 품목으로 지정해 6월 30일까지 두 달간 추진

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올해 수입 수산물 취급 이력이 확인된 전남지역 수입·유통·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개소다.

이 중 지역별로 흩어져있는 음식점 및 소매업체는 사·군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조사·점검이 복잡한 수입·유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남해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할 계

획이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품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면서 추가되는 가리비, 우렁छ이, 전복, 방어, 부세의 원산지 표시도 적극 홍보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 표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믿는 수산물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임대차 보증금·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법인회사 신용상태 파악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24시간 상담가능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

• 금당부동산 •

도시형 생활주택 등 (나주시)

- 대지 954㎡ (상업지 288.6평)
- 건물 2,254㎡ (681.84평) 지상 5층, 2022.4 준공
- 도시형 생활주택 42세대, 오피스텔 7실 근린시설 73.4㎡
- 매도 45억 (감정 50억, 대출 25억)
- 임대 보증금 2억8천 원세 2,400만원 포함
- 이전은 법인이전가능하고 사업부지와 교환도 가능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447㎡ (740평)

- 경관 좋음, 별장형 빌라 등 가능, 숙박시설가능
- 매도 7억7천만원

함평군 해보면 해보리 산 약 3,223㎡ (4,000평선)

- 전원주택단지 좋음, 은행 2억 매도 12억

무안군 참계면 강정리 바닷가마을 대지 850.6㎡ (257평)

- 집 83㎡ 다세대분양 적합, 은행 5천 매도 1억7천

무안군 현경면 평산리 바닷가 집 땅 4,650㎡ (1,406평)

- 공시가 7,527만원, 투자에 좋음, 매매가 1억6천

화순군 사평면 사수리 1,735㎡ (524평)

- 컨테이너 있고 공시가 3,740만원 매도 7,500만원

고흥군 도화면 사덕리 전 포함 산 47,537㎡ (14,380평)

- 투자 등 적합 1억7천 (평당 11,822원)

전화 062-222-4994 / 010-2632-5659
FAX 062-222-4993

채권신고 및 청산종결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4월 27일 임시주주총회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2023년 4월 28일자에 해산 등기를 완료하였는바 금번, 청산종결을 하고자 하오니 이에 이의가 있는 주주 및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2023년 7월 2일까지 그 채권액을 본 회사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위 기일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종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5월 3일
주식회사 더뎌
전라남도 나주시 정보화길 26, 210호
(빛가람동, 케이원지식산업센터)
청산인 이원철

상속한정승인공고

• 피상속인: 망 서귀포(450523-XXXXXX)
• 최후주사: 영주시 봉강서길 38, 101동 1206호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배촌리 46)
• 상속인: 망 서귀포의 상속인은 위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한정승인을 청구할법원 승천지원 2023년10157호로 신청하여 2023년 4월 27일 친인용회합으로 피상속인에 대한 일반채권자 및 상속자는 공고일로부터 신고기간에 채권신고를 하시기 위하여 위 기일이 지난날 청산에서 제외됩니다.

2023년 5월 3일
상속인 신해영(국문번호 13,020(신해영(안기버터))
2. 나은정(660907-XXXXXX)
3. 나은희(660910-XXXXXX)
4. 나은정(720210-XXXXXX)
5. 나은희(750210-XXXXXX)
6. 나은정(750210-XXXXXX)
7. 나은희(750210-XXXXXX)
(충청남도 홍성군 배촌리 46)
• 신고기간: 2023. 5. 3 ~ 2023. 7. 13.
• 채권신고주소: 상속인 4. 나은정의 주소

산행안내

5월6일(토)

▲광주호신회 5월 6일(토) (경기산행 신안 소외도 신안이고 12사도강 트레킹) 오전 06시 30분 광안동 뒷마루터 주차장출발 06시 45분 동성고 양육교 밑 06시 50분 백운우계곡 07시 롯데백화점 07시 15분 예술회관후문 010-4621-2166, 010-6702-9796 http://cafe.daum.net/gwangjuhosan